

임영웅, 고척돔서 앙코르 콘서트를 하지 않았다... 내년 2월 美 공연

전국 투어 이후 짧은 기간 새로운 레퍼토리 8세부터 100세까지 아우른 세대통합 공연

가수 임영웅(31)은 앙코르 콘서트를 하지 않았다. 임영웅이 10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펼친 '2022 임영웅 전국투어 콘서트 - 아임 히어로(IM HERO) 서울 앙코르' 콘서트는 앙코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직전 첫 전국 투어와는 다른 새로운 공연이었다. 앞서 임영웅은 지난 5월6일 고양에서 시작해 8월14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KSPO DOME)에서 마무리한 첫 전국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IM HERO)'로 '영웅시대' 17만명을 끌어모았다. 전국 7개 도시 21회차 공연을 통해 거둔 성과다.

이후 지난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열기 전까지 신곡 발표, 시상식 참석 등 각종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시간이 빠듯했는데도 새로운 공연 레퍼토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사실 앙코르 콘서트는 기존 레퍼토리에 신곡만 추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팬덤 '영웅시대'에게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임영웅은 레퍼토리를 뜯어 고쳤다.

무엇보다 국내 실내 콘서트장 중에선 가장 많은 인원을 들일 수 있는 고척돔 스케일에 맞는 연출과 구성이 인상적이었다. 이날 공연장엔 1만8000명이 운집했다.

공연장 한쪽 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서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한 뒤 임영웅이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연출로 출발한 공연은 영국 런던 콘셉트가 시작점이었다.

임영웅은 지난달 발매한 신곡 '런던 보이'로 포문을 열었다. 버킹엄 궁전 근위병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은 댄스 등 여러 인원이 등장해 뮤지컬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이처럼 무엇보다 제작비를 아끼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다. 임영웅이 지난 전

국투어에서 웅조(雄祖)로 변신한 사극 단편 '아비안도(我備安都)'의 시즌 2를 선보였는데, 영화 못지 않은 스케일이 눈길을 끌었다. '아비안도'는 임영웅의 레게힙합곡 '아비안도'의 언어유희로, VCR은 임금 임영웅이 백성을 위한 노래를 짓는 과정을 그린다. 유동 인구가 많은 저잣거리, 연희 장면 등이 등장하는 영상은 제작에 상당한 공이 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장르가 실린 정규 1집 '아임 히어로'로 이미 '트로트 가수'라는 수식을 떼고 그냥 가수가 된 임영웅은 이번 콘서트에서도 다양한 장르를 섭렵했고, 목소리도 그에 맞춰 유연했다.

임영웅은 이미 지난달 26일 대형 연말 시상식 '멜론 뮤직 어워드(MMA) 2022'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앨범' '톱(TOP) 10' 등 3개의 주요상과 베스트상의 '베스트 솔로 남자', 특별상인 '네티즌 인기상'까지 5관왕을 차지하며 K팝 아이돌 사이에서도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이날 이적이 작사·작곡한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두말 품의 '손이 참 곱던 그대', 싱어송라이터 니브(Nive)이자 153집바스뮤직그룹 소속 작곡가인 박지수가 작사·작곡한 '사랑해 진짜' 등에서 목소리가 담백했다.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따라따라' 등 트로트를 들려줄 때는 능수능란했다. 특히 4세대 대표 걸그룹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춤을 선호하며 10~20대의 열광적인 반응도 얻어냈다. 앙코르에서 선보인 캐럴 메들리에선 보컬이 경쾌했다.

무엇보다 분명 '영웅'을 영어로 옮긴 '히어로(hero)'를 타이틀로 내세운 앨범 발매를 기념한 동명 콘서트의 앙코르 공연은 본 전

국 투어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영웅시대임을 분명히 했다.

3시간 가까이 특정 연령대에 쏠린 것이 아닌, 남녀노소로 구성된 팬들은 임영웅의 상징적인 하늘색 옷을 입은 채 응원봉을 들고 객석을 하늘빛으로 물들였다. 임영웅은 이날 공연 도중 연령대별로 팬들의 반응을 확인했는데, 해당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인 8세부터 무려 100세가 넘는 어르신까지 한 자리에 함께 했다. 그야말로 세대통합 공연인 셈이다. 임영웅은 "8세부터 100세까지 다 찾는 신기한 공연 아니에요. 이 순간만큼은 자부심을 느낀다"고 뿌듯해했다.

객석엔 일본 팬들 눈에 띄었다. 지난달 말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열린 '2022 마마 어워드(MAMA AWARDS)'에서 남자 가수상을 받으며 일본에서도 팬덤을 확인했던 그는 오는 13일 일본 나고야 니혼가이시홀에서 열리는 '202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드'(AAA)에도 출연한다.

임영웅은 북미 시장 진출도 예고했다. 내년 2월 11~12일엔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곳으로 유명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돌비시어터 무대에도 오른다. 자신의 곡 '런던 보이' 제목을 빌려 "LA보이"가 되고 오겠다"고 했다.

이날 임영웅이 콘서트를 성료한 고척스카이돔은 방탄소년단(BTS), NCT 127, 워너원 등 팬덤이 강한 보이그룹 위주로 콘서트를 열어들어온 곳이다. 임영웅은 화려한 군무나 게스트 없이도 이 큰 공연장을 홀로 3시간가량 너끈히 채우는 저력을 증명했다.

임영웅은 이날 "예전에 400석 공연 당시 4000석, 4만 석에서 공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도 '가득 채울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지만, 꿈꾸면 언젠가 이뤄진다는 생각을 하며 꿈을 놓지 않도록 하겠다"고 또 다짐했다.

사실 '밀리언셀러' 임영웅의 서울 콘서트엔 수만명이 몰리는 것이 당연지사. 이번 앙코르 콘서트 예매 과정에서 최대 83만 트래



픽을 기록했다고 소속사 물고기뮤직이 전하기도 했다. "이러다 정말 호남평야에서 공연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다. 실제 국내 대중음악 가수 중 가장 표를 구하기가 어려운 주인공이 임영웅이다. 국내 톱 가수들은 고척스카이돔에 입성한 뒤엔 자연스럽게 국내 콘서트업체의 성자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단독 공연을 한다. 스타디움인 이곳은 4만명 규모다. 앞서 방탄소

년단, NCT 127도 고척스카이돔을 거쳐 올림픽 주경기장 무대에 올랐다. 다만 주경기장이 속한 잠실종합운동장이 곧 리노베이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시기는 가능하기 힘들다. 하지만 임영웅이 어떤 형태로든, 수만 명이 모이는 콘서트를 곧 열 것으로 보인다. 임영웅은 이날 마지막에 "조심을 잃지 않고, 영웅시대가 주신 사랑을 평생 생각하며 천천히 오래오래 가겠다"고 약속했다.

베일 벗은 '영화 조커2'...깜마른 모습 그대로 돌아왔다



2019년에 개봉해 5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

2024년 10월 개봉 호아킨 피닉스 주연

어모았던 영화 '조커'의 후속작 '조커2' 촬영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작에 이어 속편 연출을 맡은 토드 필립스 감독은 지난 10월 소셜미디어에 '조커2' 촬영 현장 사진을 한 장 올렸다. 주인공 '아서 플렉'을 연기하는 호아킨 피닉스의 모습으로, 피닉스가 다시 한 번 깜마른 몸매의 플렉으로 돌아와 누군가에게 면도를 받고 있는 장면이다. 필립스 감독은 "Day 1. Our boy"라는 코멘트를 달아 이 사진이 첫 번째 촬영 날 찍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했다.

'조커2'의 정식 제목은 '조커: 폴리 아두'(Joker: Folie à Deux)다. 'folie à Deux'는

감응성정신병이라는 뜻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두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정신병을 뜻한다.

이번 작품엔 조커의 연인 '할리 퀸'이 나온다. 할리 퀸은 가수 겸 배우 레이디 가가가 맡기로 했다.

다만 이번 작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영화 2024년 10월4일 개봉 예정이다.

앞서 '조커'는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 넘는 수익을 올리며 크게 흥행했다.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남우주연상과 음악상을 받기도 했다.

"라타타타 울린 심장"...뉴진스, 오는 19일 겨울싱글 '디토' 공개

내년 1월 2일 발매 예정인 새 싱글 'OMG' 선공개곡

올해 신드롬을 일으킨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새 싱글의 수록곡을 미리 선보인다. 12일 소속사 어도어에 따르면, 뉴진스는 오는 19일 오후 6시 음원사이트에 겨울싱글 '디토(Ditto)'를 발매한다. 내년 1월2일에 발매 예정인 새 싱글 'OMG' 수록곡으로 선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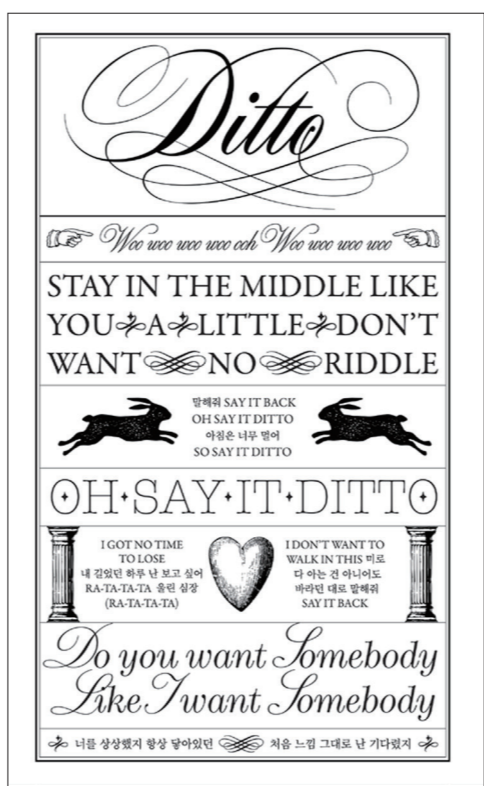
이날 뉴진스는 "오 세이 잇 디토(OH SAY IT DITTO)" "아침은 너무 멀어" "라-타-타-타(RA-TA-TA-TA) 울린 심장" 등 '디토'의 가사 일부가 실린 모션 포스터와 토끼가 뛰어가 는 모습이 담긴 로고 모션 2개를 공개했다. 레트로 감성이 묻어나는 로고 모션은 흰색 글씨에 붉은색 토끼, 붉은색 글씨에 흰색 토끼 등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됐다.

같은 시간 공개된 엽서 모양의 모션 포스터에는 "함께 보내는 첫 겨울, 우리의 마음이 담긴 앨범 'OMG'. 특별히 준비한 겨울 수록곡 '디토', 새로운 타이틀곡 'OMG'이라는 손글씨

설명글이 적혀 있다. 설명글에 따르면, 앨범에는 뉴진스의 이야기를 담은 엽서패킷 음성메시지, 사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국내외 물론이외 해외 음악시장에서도 주목받는 대세로 떠올랐다.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데뷔곡 '어텐션(Attention)'과 '하이프 보이(Hype boy)'로 '톱(TOP) 100' 1·2위를 차지한 최초의 걸그룹이 됐다. K팝 그룹 데뷔곡(어텐션) 최초로 스포티파이 '윌리엄 송 미국'에 차트인 했다.

영미 팝 유행 매체의 연말 결산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데뷔앨범 수록곡인 '쿠키(Cookie)'는 K-팝 노래로는 유일하게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꼽은 '2022 베스트 송'에 선정됐다. '하이프 보이' 역시 미국 음악 매거진 롤링스톤과 영국 음악 매거진 NME가 발표한 '올해의 베스트 송'에서 K-팝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레드벨벳·에스파'표 캐럴 '뷰티풀 크리스마스'

사랑스러운 산타로 변신...오는 14일 선공개



그들 '레드벨벳(Red Velvet)'과 '에스파(aespa)'가 사랑스러운 산타로 변신한다. 12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6시 음원사이트를 통해 '뷰티풀 크리스마스(Beautiful Christmas)'를 선공개 한다. 이번 곡은 오는 26일 발매되는 '2022 윈

터 에스엠타운 : SMCU 팰리스(2022 Winter SMTOWN : SMCU PALACE)의 타이틀 곡이다. SM 소속 선후배 레드벨벳과 에스파가 선보이는 특급 컬래보레이션이다.

'뷰티풀 크리스마스'는 리드미컬한 베이스와 피아노 연주를 중심으로 경쾌한 스윙 리듬이 돋보이는 캐럴 댄스곡으로, 가사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설렘을 안고 한 해를 되돌아보는 감상을 담았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는 오늘이 최고의 순간이라는 메시지와 두 그룹의 보컬이 만나 신나는 파티 분위기를 배가시킨다.

또한 뮤직비디오는 산타로 변신한 레드벨벳과 에스파가 'SMCU 팰리스'에 함께 모여 파티를 즐기는 모습과 따뜻한 색깔 비주얼 등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할 전망이다. 뮤직비디오 티저는 13일 0시 공개 예정이다.

류준열 '올빼미' 3주 연속 주말 1위

영화 '올빼미'가 3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며 250만 관객 고지를 밟았다. 이로써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250만명 이상 본 작품은 '올빼미' 포함 모두 10편이 됐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빼미'는 9~11일 전국 1479개관에서 46만8555명이 봐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올빼미'는 지난 달 23일 개봉 이후 3주 연속 주말 정상을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252만512명이다. 영화는 올해 국내 개봉작 순위에서 10위에 올랐다. 9위는 '토르:러브 앤 썬디'(271만명), 8위는 '마녀2'(287만명)이다. 한국영화로 범위를 줄이면 '올빼미'의 관객수는 '범죄도시2'(1269만명) '한산: 용의 출현'(817만명) '공조2: 인터내셔널'(698만명) '헌트'(435만명) '마녀2'에 이은 6위 기록이다.

'올빼미'는 조선 인조 시대를 배경으로 맹인



침술사 '경수'가 궁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소현세자 사명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암살이라는 상상력을 더해 만든 팩션(fact+fiction) 사극이다. 유해진이 인조를, 류준열이 경수를 연기했다. 최무성·조정하·김성철 등도 출연했다. 연출은 '왕의 남자'(2005) 조연출 출신인 안태진 감독이 했다. 안 감독은 '올빼미'가 연출 데뷔작이다.